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뜻 모아'

도교육청 합동워크숍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한계점 등 논의
학업중단예방도 '한 뜻'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학업중단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지자체, 도·시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과 합동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합동워크숍은 학업중단예방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는 전북교육청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교육청뿐만 아니라 전북도 및 14개 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등이 함께 했다.

코로나 이후 학업 중단율이 다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맞춤형 지원으로 학업중단예방의 효과성을 높이고 내실 있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뜻을 모으기로 했다.

합동워크숍에서는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도·시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간의 사업 현황을 공유하고, 각 기관별 학업중단 위기학생 지원 방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의 한계점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학업 중단율을



전북도교육청은 학업중단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지자체, 도·시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과 합동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낮추기 위해 학업중단숙려제(7주 이내)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또 위기 학생 조기 발굴을 위한 학교 상담 강화, 학업중단예방중점학교(120개교), 학업중단 우선지원학교(고 10교)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서함양, 진로, 문화예술 등 학업중단예방을 위한 정서함양 관

련 지원기관(18기관), 대안교육위탁기관(22개 기관)과 연계한 학업중단예방에도 적극 나섰다.

한편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과 관련해서는 전북교육청·소년지원센터와의 신속한 정보 연계를 통해 맞춤형 지원 및 진로진학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정성환 민주시민교육과장은 "교육청

과 지자체가 함께하는 합동워크숍은 이번에 처음 개최되는 것으로 의미가 크다"면서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학업중단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교육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지속적으로 학교 복귀를 돕는 것은 물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북대학교는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 우수작품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가변식 안전망 전개 영유아 낙상 사고율 감소

전북대 캐처스 '영유아 추락 방지 장치'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서 '대상' 수상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는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 우수작품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LINC 3.0 사업단과 공학교육혁신센터의 공동 주관으로 열린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는 학생들의 전공 지식과 창의력을 결합해 산업 현장에서 실제 활용 가능한 아이디어를 기획하고 설계해 작품으로 선보이는 대회다.

올해 178개 팀이 우수 아이디어를 선보였다.

이번 대회에서 대상은 박현수 학생(공대 기계설계공학부) 등으로 구성된 캐처스 팀이 출품한 '영·유아 추락 방지 장치'가 차지했다. 이 작품은 영유아의 참문 밖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가변식

안전망 전개 장치로, 인명 사고를 방지하고 영유아 낙상 사고율을 감소와 유지 보수가 쉽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이번 대회는 4년 만에 다시 오프라인으로 작품 전시가 이뤄졌다. 송철규 LINC 3.0 사업단 단장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온라인으로 만날 수 있었던 학생작품을 현장에서 직접 볼 수 있어 감회가 새롭다"며 "앞으로도 산학연 협업체계를 강화해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모든 구성원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회 작품은 전북대 LINC 3.0 사업단 홈페이지 온라인 전시관에 상시 전시될 예정이다. /정은성 기자



우석대학교는 지난 21~22일 양일간 소노벨 변산에서 2023학년도 직급별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우석대, 2023학년도 직급별 교육

자기 주도적 참여교육 확대

우석대학교(총장 남천현)는 지난 21~22일 양일간 소노벨 변산에서 2023학년도 직급별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교육부의 정책방향 및 사회변화 동향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직무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자기 주도적 참여 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21일은 체재원 혁신지원팀장의 '교육혁신 전략'을 시작으로 김이현 에이스 휴먼 브릿지 대표가 스커뮤니케이

션 스킬 △문제해결 디자인씽킹 △조별 토론 활동 및 발표 등을 진행했다.

이어 22일은 서용성 사무부처장이 청탁금지법과 보안교육을 실시했으며, 교육 이후 직원들은 소노벨 변산 인근에서 ESG 비전 'GREEN WOODSUK' 실천을 위한 플로깅을 펼쳤다.

송교원 사무처장은 "급변하는 시대 흐름에 발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이고 고도화 된 행정이 필수"라며 "앞으로도 직원의 혁신의욕을 강화하기 위해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도교육청 주관 대학 입시설명회 '인기 좋네?'

EBS·대교협서 인정받은 전국구 강사들 참여... 학생·학부모 호응 높아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주관하는 대학 입시설명회에 대한 학생·학부모들의 호응이 높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설명회 횟수를 대폭 늘렸다. 22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두 달 동안 총 7회의 대형 입시설명회를 집중적으로 실시했으며, 의암계열·사관학교·이공계 특성화대·서울 및 전북권 주요대학 등 다양하게 진행됐다.

특히 지난 4월 15일 고 1~2학년 대상 입시설명회와, 6월 15일 의암계열 설명회는 도교육청 청조나래 시청각실 350석을 꽉 채우고도 자리가 부족해 계단과 바닥에 앉아 설명을 들을 만큼 많은 인원이 몰렸다.

이처럼 도교육청 입시설명회가 큰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코로나19가 잠잠해진 탓도 있지만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공교육 일타 강사들이 참여해 정확하고 전문성 있는 입시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EBS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인정받은 공교육 스타 강사와 대학별 책임 입학사정관의 수준 높은



전북도교육청이 주관하는 대학 입시설명회에 대한 학생·학부모들의 호응이 높다. 사진은 지난 4월 열린 대입설명회의 모습.

강사가 학부모와 수험생들의 만족도를 높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지난 4월부터 전북지역 7개 권역에서 권역별 대면 진학상담실도 운영하고 있다.

매주 월~금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9시 20분까지 이뤄지는 진학상담은 학생·학부모로부터 인기가 높아 원서접수 집중기에는 상담 횟수를 늘릴 계획이다.

유효선 중등교육과장은 "대학 입시 정보가 많이 공유되고 있지만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 여전히 대입준비가 난해한 것이 사실"이라며 "전북교육청의 다양한 입시설명회를 통해 우리 지역 수험생들의 대입 준비를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입시설명회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 진학동영상 자체 제작해 전북교육청 유튜브 꿈사다리 TV(<https://www.youtube.com/@jedumovie>)에 탑재하고 있다. /정은성 기자

전주대 호텔경영학과 6명, 국내 5성급 호텔에 합격

서울 드래곤시티 호텔 등

전주대학교 호텔경영학과 6명이 국내 대형 호텔에 합격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윤호선씨 등 졸업을 앞둔 4학년 학생 6명이 서울 드래곤 시티 호텔과 부산 하얏트 호텔, 안다즈 호텔 등에 합격했다.

서울 드래곤 시티 호텔은 용산에 있는 객실 1,700여 개를 보유한 Accor그룹의 대형호텔이며, 하얏트 계열인 부산 하얏트 호텔과 젊은 세대 감성에 맞춘 안다즈 호텔은 모두 국내 5성급 호텔이다.

이들에 합격한 학생들은 호텔 프런트와 F&B부서에서 근무하게 된다.

특히 채용 면접을 위해 직접 방문한 호텔관계자들이 전주대 호텔경영학과 출신이어서 더욱 눈길을 끈다. 서울 드래곤 시티 호텔에 근무하는



전주대학교 호텔경영학과 6명이 국내 대형 호텔에 합격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전주대학교 제공)

이대일 차장은 전주대 호텔경영학과 2002학번이며, 하얏트 호텔 한국 본사 인사팀 최성욱 대리는 2008학번 졸업생이다.

이대일 차장은 싱가포르 콘래드 호텔에 입사한 뒤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을 거쳐 현재 용산 드래곤 시티 호텔로 옮겼으며, 현재는 총 1,700여

개 객실과 피트니스 운영을 담당하는 객실피트니스 총괄차장을 맡고 있다.

또 최성욱 대리는 부산 하얏트 식음료부서에서 호텔리어로서 경력을 쌓은 뒤 인사팀에 발탁됐으며, 현재는 하얏트 서울 본사 인사팀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대일 차장과 최성욱 대리는 "서비스마인드와 어학 실력 등 호텔리어로서 요구되는 자질이 잘 갖춰진 후배들이 자랑스럽다"며 "학교 선배와 호텔업계의 선배로서 앞으로도 후배들의 경력 관리가 잘되도록 지속해 멘토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호텔경영학과 안세길 교수는 "국내 5성급 호텔에서 우리 학과 졸업생들의 활약이 두드러지고 있다"며 "이러한 졸업생들의 활동은 그대로 후배들을 위한 멘토로 이어지고 있어 앞으로 우리 학과의 비전이 더욱 기대된다"고 전했다. /정은성 기자

호원대 취업지원실

찾아가는 이동상담성로

호원대학교 취업지원실은 지난 21일 재학생과 지역 청년들을 위한 2023학년도 찾아가는 이동 상담 성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이는 직접 방문에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들을 위해 학과로 찾아가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지난 4월부터 운영해 왔다.

올해는 사업을 확대해 축제 현장에서 이동상담을 실시했다.

축제 현장에서 상담을 받은 학생들은 "좁고 막힌 공간이 아니라 탁 트인 야외에서 친구들과 놀러오듯 편안하게 취업상담과 직업심리 검사를 받으니 마음편히 상담을 받을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은성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호원대, 교육부 주관 'Life2.0' 선정

호원대학교(총장 강희성)는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한 2주 기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Life2.0) 광역지자체 연계형에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Life2.0 사업은 성인학습자가 언제 어디서나 양질의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학의 체질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부터 2년간 국비 20억 내외의 사업비를 교육부로부터 지원받는다.

이날 호원대에 따르면 이번 공모를 위해 전북도 군산시, 전주대학교와 컨소시엄을 구축하고, 지역 연계 사업을 위한 비전 설정 및 평생학습 혁신 주체 간의 협약, 성인 전담 과정 운영 모델 및 전담 행정조직 설치, 성인학습자 전담 학위과정을 운영했다. 특히 이번 2주기 Life2.0 사업에서는

'실사구시 365 전북 평생교육 플랫폼 구축'을 비전으로 제시하면서 3대 거버넌스로 전북 평생교육 플랫폼 구축, 평생교육 특화대학 지정, 평생교육 공유·협업 지역특화 기업 간의 관계 설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삼았다.

한편 호원대는 K-미래인재대학을 신설하고, 2024학년도부터 성인학습자 중심의 4개 학과(K-뷰티소재학과, K-푸드창업학과, K-콘텐츠제작학과, 사회복지상담학과)를 운영할 예정이다.

강희성 총장은 "올해 처음 시도된 광역지자체 연계형 Life2.0 사업을 통해 지역 기반 대학의 평생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일터 및 학교와의 순환형 교육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인 학습자 선도대학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전했다. /정은성 기자